제주시 삼양동 바다환경지킴이들이 지난 17일 삼양해수욕장으로 밀려온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있다.

‘제주바다 불청객’ 괭생이모자반 또 제주섬 유입… 피서철 ‘비상’

도-기관, 상황대책반 구성 5월부터 본격 가동
3~6월 집중유입돼 악취 등으로 제주경관 훼손
올들어 500t 수거… “바다환경지킴이 등 동원”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모자반이 또 다시 제주해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 행정당국은 유관기관과 대책반을 꾸려 처리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욕장에도 많은 양의 괭생이모자반이 유입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17일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푸른 빛을 내는 바다와는 대조적으로 갈색을 띠는 괭생이모자반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괭생이모자반은 파도에 모래사장까지 떠내려오면서 해안변을 따라 긴 줄을 이었으며, 해안가 좌 우 양 옆으로는 어마어마한 양이 마치 산처럼 쌓여 있었다. 모래사장에서 맨발 걷기를 하던 관광객들은 해당 광경을 보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괭생이모자반 처리를 위해 삼양동 바다환경지킴이들이 이날 오전 6시부터 현장에 투입됐지만 밀려들어오는 양이 엄청난 탓에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바다환경지킴이 작업 반장 김영진씨는 “어제(16일) 하루동안 삼양해수욕장에서만 수거한 괭생이모자반의 양이 45~47t 정도 된다”면서 “오늘도 마대 1000개 정도를 들고 왔는데 벌써 다 써버려서 추가로 들고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삼양해수욕장의 산책로에는 바다환경지킴이들이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해 모아놓은 마대 수천 개가 쌓여 있었다.

갈조류 모자반의 일종으로 해상에 대규모 띠 형태로 떠다니는 괭생이모자반은 보통 3~6월 사이 제주에 유입된다. 대부분이 중국 연안의 암석에 붙어살다가 파도나 바람에 떨어져 나간 것으로, 유입 과정에서 선박의 스크루에 감겨 조업과 항해에 지장을 준다. 또 해변에 방치되면 주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악취를 풍기면서 매년 봄철 제주바다의 골칫덩이로 인식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이뤄진 괭생이모자반 수거실적은 2020년 5851t, 2021년 9755t, 2022년 502t, 2023년 414t으로 최근 2년간 수거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올해는 17일까지 500t 가량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당국은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대비해 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괭생이모자반 상황대책반을 구성해 지난 2일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상황대책반은 도·행정시·읍면동뿐 아니라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됐으며, 각 기관은 도내 해변과 항·포구의 괭생이모자반 유입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한 수거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고용된 바다환경지킴이 269명도 괭생이모자반 수거 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거된 양이 적을 경우에는 햇볕에 말려서 농가 비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올해는 양이 방대해 말릴 경우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쓰레기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여전

도, 신고방 두달 운영 108건 민원 접수… 3건 중 1건 주말·야간 집중

공유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PM) 불법 주정차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3월 8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제주 공유전기자전거·PM 불법 주정차 신고방’(이하 신고방)을 운영한 결과 지난 15일 기준으로 총 10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중 PM은 63대, 공유전기자전거는 89대로 총 152대의 공유기기 불법 주정차 민원들이 들어왔다. 특히 108건 중 39건(36%)은 주말·야간·연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 주민 A씨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주택 차고지 앞에 킥보드가 주차돼 있는 것 같다”면서 “아침 출근길에는 가뜩이나 시간도 촉박한데 무거운 전동킥보드를 옮기는데 진땀을 빼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유도하는 캠페인 전개나 홍보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공유업체별로 평균 1시간 이내에 해당 기기를 이동 및 수거하고 있다.

오전 9시~오후 6시 접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 답변을 게시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카카오톡 ‘공감 기능’ 중 ‘체크’ 표시로 처리가 됐다는 것을 알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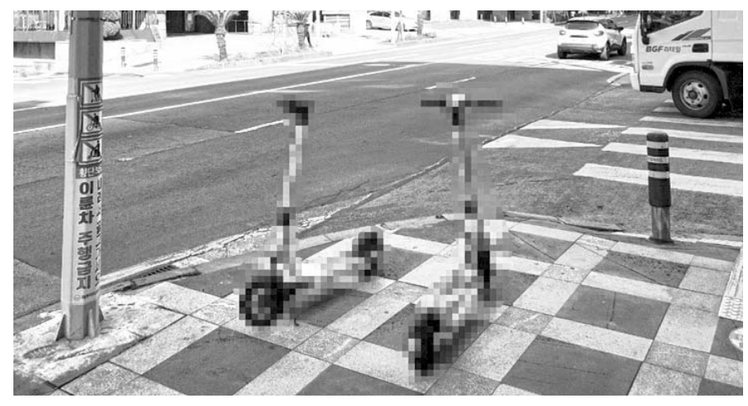
오픈채팅방에는 자전거·PM 담당 공무원, 공유업체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어 신고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도민이 신고방에 접속해 기기의 위치, 신고 내용(통행불편, 차량 진출입 불편,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 장기 무단방치), 현장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반복적인 무작위 불편신고가 잇따르면 관계 공무원 간 협의를 거쳐 통행과 보행 안전에 현저한 불편이 없을 경우, 공유업체에 모니터링을 요청한다.

또한 욕설, 폭언, 불법 게시물 등을 올릴 경우 1회 경고 후 ‘가리기’ 처리, 재발 시 강제 퇴장 및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신고방 운영을 통해 불법 주정차 공유전기자전거와 PM으로 인한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 위에 주차돼 있는 전동킥보드.

1900만원 짜리 롤렉스 시계 갖고 줄행랑

중고물품 거래 중 범행
일당 3명 집행유예 선고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명품 시계를 훔쳐 달아난 20대와 공범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17일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B(20)씨와 C(20)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19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고물품 거래 앱에 시계 판매글을 올린 피해자와 만나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시계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순식간에 낚아채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와 C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A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민기자

동급생 사진 합성 성영상물 제작한 국제학교 학생 입건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모 국제학교 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군은 같은 학교 학생 2명의 사진을 이미지 합성(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로 제작, 친구들과 함께 본 혐의를 받는다.

A군의 범행은 이 같은 사안을 인지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발각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채현기자

JM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귤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귤고리
귤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귤고리’가 있습니다!

귤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귤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귤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귤고리 작업세트 구성

귤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귤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